

# 朝鮮이 구축한 杜詩를 향한 또 다른 시선

- 《朝鮮王朝實錄》의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

최석원\* · 김보경\*\*

## <目次>

I. 杜詩學의 지평 확대	III. 杜詩를 바라보는 조선의 두 가지 인식의 축
II. 《朝鮮王朝實錄》 杜詩 관련 기사의 몇 가지 경향성	IV. 나가며-연구의 완성성을 위하여

## I. 杜詩學의 지평 확대

주지하듯이 ‘한자’와 ‘유교’라는 문자 그리고 사상적 기반을 공유한 조선 사회에서 杜詩는 시학의 표준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물론 杜甫의 존재와 그의 작품들이 언제 한반도에 전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지 만,1) 적어도 조선 사회에서 향유된 杜詩의 지위와 위상은 쉬이 부정할 수

\* 제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주저자)

\*\* 명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교신저자)

1) 일찍이 서수생은 일본 大江維(889~963) 시대에 편찬된 《千載佳句》에 총 6 구에 해당하는 杜詩가 기록되어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한반도의 비슷한 시기인 통일신라시대에 杜甫의 작품들이 전래되었을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서수생, 〈杜詩 權域 傳來의 時期와 諺解의 是非點〉, 《어문학》 제12호, 1965) 그런데 이는 명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확성을 고찰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고려 시대 杜詩에 대한 언급은 비교적 명확하게 남아 있는데, 吳廷碩은 〈山村海棠〉에서 ‘可堪工部終無詠(두공부는 어찌 끝내 읊지 않았던고)’이라고 하였고, 吳廷碩보다 조금 이른 문인인 林宗庇 역시 ‘書欲破杜陵之萬卷(서책은 두소릉처럼 만권을 돌파하고자 하였다)’이라 하였다.(정선

없을 테다. 조선에서 杜詩는 비단 개별 문인들의 애호의 대상으로 그치지 않고, 왕조의 차원에서 杜詩에 대한 주해 및 번역 작업을 시행한 바 있으니 《杜律分韻》이나 《杜陸千選》, 조선 최초의 번역서 《杜詩諺解》가 이를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朝鮮王朝實錄》 관련 기사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sup>2)</sup>

[세종실록 100권. 세종 25년 4월 21일 병오] 중외에 두시에 대한 제가의 주해를 구입하도록 명하였다. 이 때에 집현전으로 하여금 두시에 대한 여러 사람의 주석을 참고 규정하여 하나로 만들도록 하였으므로 구입하도록 한 것이다.<sup>3)</sup>

위의 기사는 世宗 말엽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纂註分類杜詩》의 편찬 과정을 보여준다. 그런데 해당 기사는 크게 두 가지의 사실을 짐작케 하는바, 먼저 世宗朝에 이미 杜詩 관련 주해들이 상당 부분 수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朝鮮王朝實錄》 正宗 2년 관련 기사를 통해 《杜詩范德機批選》(范梈 批選, 鄭廡 編次)<sup>4)</sup>이 유통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sup>5)</sup> 이후 正朝使로 明에 다녀온李克基가 《分類杜詩》를 成宗

모, 〈高麗詩壇에 있어서의 杜詩受容 樣相 考察-林椿의 杜詩評價를 중심으로〉, 《漢文學報》 제12집, 2005, 15-21쪽) 물론 위의 언급들은 杜詩에 대한 직접적이고 독창적인 표현이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당시 고려 문인들이 杜詩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하겠다. 이후 李仁老의 《破閑集》 등에서도 杜詩 관련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는바, 杜詩는 고려 중엽 이후 문인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2) 이하의 《조선왕조실록》 원문 및 번역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sillok.history.go.kr)에서 인용하되, 의미 전달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번역 상 수정을 가하였다.
- 3) “命購杜詩諸家註于中外。時，令集賢殿參校杜詩諸家註釋，會粹爲一故，求購之。”
- 4) 정종 2년 8월 4일 병신: “御經筵，同知事李詹進曰 …(中略)… 鄭廡抄杜詩三百首，蓋做詩之三百篇也。乞於經筵并觀之。(경연에 나아가니, 동지사 이첨이 말하였다. …(중략)… 정내가 두시 3백 수를 초출하였는데, 대개 《시경》 3백 편을 모방한 것입니다. 빌건대, 경연에서 아울러 보소서.)”
- 5) 세종 13년(1431년)에는 밀양에서 중국본을 복간한 《杜工部草堂詩箋》이 유통

에게 바친 기사 등을 고려해보면 조선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杜詩集 또는 杜詩 注解本을 수집·편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6)</sup> 더불어 世宗은 《纂註分類杜詩》와 같은 조선의 독자적인 杜詩 注解書 발간을 추진하였던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조선에서 杜詩가 비단 개별 문인들의 애호에 그치지 않고 왕조의 차원에서 杜甫 시에 대한 주목이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본고는 이렇듯 《朝鮮王朝實錄》에 기재되어 있는 杜甫 그리고 杜詩 관련 기사들을 일별하고, 이를 통해 조선 왕실 그리고 조선의 정책 일선에 서 있던 통치계층들에게서 이루어진 杜甫와 杜詩 담론의 형성 과정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물론 지금까지 조선의 杜詩 영향과 수용의 문제를 다룬 연구는 충분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만 하다. 그 중 이병주의 《韓國文學上의 杜詩研究》는 조선 문인들이 창작한 한시 작품 속 學杜의 흔적은 물론이고 가사 문학 등 방면에서의 杜詩 활용과 학습의 면모를 확인한 선구적 연구라고 하겠다.<sup>7)</sup> 또한 이영주는 《韓國詩話에 보이는 杜詩》를 통해 杜詩에 탑재되어 있는 章法, 句法, 字法에 대한 고려와 조선 문인들의 평론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바 있는데,<sup>8)</sup>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한자문화권 내 杜詩의 수용과 영향에 대한 진일보한 연구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조선의 杜詩 수용과 관련한 일련의 연구 성과들은 杜詩 관련 판본의 문제는 물론이고 개별 문인들의 杜詩 학습과 활용을 규명함으로써 한자문화권 내 杜詩의 인식을 규명하는 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sup>9)</sup> 다만, 지금까지 杜詩 수용과 영향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개별 문인

되기도 하였다.

- 6) 이와 관련하여서는 심경호의 《漢文學과 詩經論》(일지사, 1999)의 “Ⅲ. 詩學의 발전과 杜詩集 간행”을 참고할 것.
- 7) 이병주, 《韓國文學上의 杜詩研究》, 이우출판사, 1979.
- 8) 이영주, 《韓國詩話에 보이는 杜詩》,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 9) 관련 연구 성과로는 전영란의 《韓國詩話中有關杜甫及其作品之研究》(文史哲出版社, 1991), 左江의 《李植杜詩批解研究》(中華書局, 200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의 《杜詩와 杜詩諺解 연구》(태학사, 1998) 등의 저술

과의 관계에 치우쳐 있다는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문학’이라는 근대 이후 생성된 장르적 공간 속에서 그 영향 관계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또한 노정하고 있다. 주지하듯 전통 시기 문인들의 글쓰기는 지금 흔히 말하는 순수예술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서경호의 논의에 기대어보면, 전통 시기 문인들의 글쓰기는 개인과 공적 영역의 겹침 그리고 정치권력과의 영향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sup>10)</sup> 춘추전국시대 賦詩의 전통이라든지 과거제를 통해 실현된 詩賦取士의 관념은 전통 시기 글쓰기가 비단 개인적 차원에만 머물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명징한 예라고 하겠다. 본고는 한자문화권 내 전통 문인들의 이러한 글쓰기에 대한 인식의 근저에 기반하여 비단 ‘문학’이라는 장르적 범위 내 영향관계 규명에서 벗어난 조선이라는 문화적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 杜甫의 시에 대한 인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결국 《朝鮮王朝實錄》은 ‘문학’의 영역과는 다른 정치적, 문화적 영역에서 발생한 杜詩 담론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라고 판단되는 바, 본고는 이를 대상으로 조선 사회가 구축한 杜詩 담론의 현상과 그 문화적 의미를 탐구해 나가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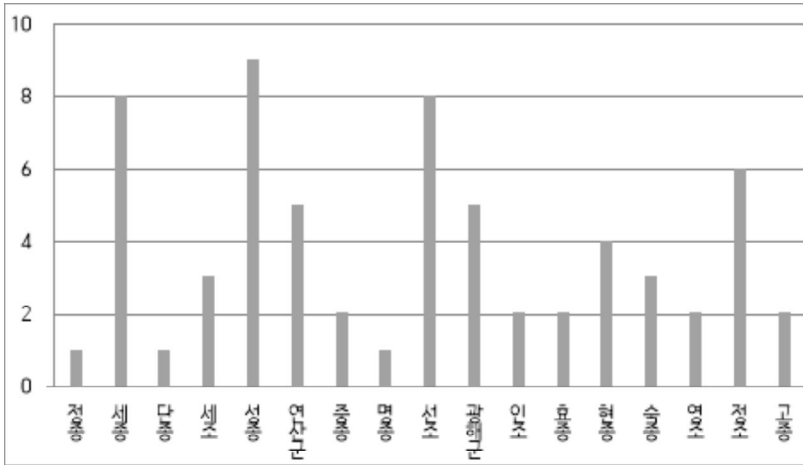
## II. 《朝鮮王朝實錄》 杜詩 관련 기사의 몇 가지 경향성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朝鮮王朝實錄》 중 杜甫와 杜詩 관련 기사는 총 64건이 확인되는바, 이를 도표화하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sup>11)</sup>

이 존재하며, 조선의 두시 수용과 영향과 관련한 다수의 연구 논문들이 존재하는데 지면의 제약 상 열거하지 않도록 한다.

10) 서경호, <한중문학의 사회문화적 특징>, 《제1회 한·중인문학포럼 발표논문집》, 2015, 25쪽.

11) 이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杜甫’, ‘杜詩’, ‘杜工部’, ‘杜少陵’으로 검색한 결과임을 밝힌다.



〈그림 1〉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朝鮮王朝實錄》 가운데 杜甫 관련 기사를 분류해보면, 成宗朝가 9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世宗과 宣祖는 8건, 正祖 6건 그리고 燕山君과 光海君 5건이 확인된다. 물론 언급 횟수에 있어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나 成宗 그리고 世宗과 正祖朝에 杜甫 관련 언급이 증가한 데에는 해당 시기 杜甫 관련 문헌이 간행되었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sup>12)</sup> 다만, 宣祖 시기 관련 기사들 가운데에는

12) 세종실록에는 《纂註分類杜詩》를 편찬하기 위해 제가의 주해서를 구입하고, 회암사 주지승 卍雨에게 두시 주해 과정 중 자문하도록 하거나 가뭄으로 인해 두시 수찬 작업을 중지하는 등 일련의 두시 주해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해당 기록들을 예거하면 아래와 같다.

[세종실록 100권, 세종 25년 4월 27일 임자] : 命檜巖住持僧卍雨移住興天寺, 仍賜衣, 令禮賓供三品之廩. 卍雨及見李穡, 李崇仁, 得聞論詩, 稍知詩學, 今註杜詩, 欲以質疑也.(회암사 주지승 만우로 하여금 흥천사에 이주하도록 명하고, 이어서 의복을 하사하고, 예빈사에서 3품 관직에 해당하는 녹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만우는 이색과 이승인을 만나 시를 논한 것을 들은 것이 있어서 시학을 조금 알았는데, 지금 두시를 주해하게 되매 의심나는 점을 물어 보고자 함이었다.)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8일 신미] : 上謂承政院曰, 久旱不雨, 無異於丙辰, 天災至此, 爲之奈何. 畜穀之術, 不可不慮. 今請停治平要監撰集文臣供

유독 ‘一飯未忘君’ 혹은 憂國의 상징으로서 杜甫가 형상화되거나 관련 시구들을 인용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됨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조실록 180권, 선조 37년 10월 22일 무진] 완양 부원군 이충원이, ... (중략)... 신은 삼가 생각건대, 두보가 시를 읊음에 ‘한번 밥 먹을 적에도 임금을 잊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신은 동방 사람으로서는 한 번 숨쉴 적에도 황은(皇恩)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sup>13)</sup>

위의 기사는 선조 37년 이충원이 元結의 〈大唐中興頌〉을 모방한 〈大東中興頌〉을 지어 宣祖에게 바친 뒤 왜란으로 어지럽혀진 조선을 바로 세울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주지하듯이 蘇軾에게서 비롯된 “一飯未忘君” 설은 송대 이후 杜詩를 규정하는 대표적 평가로 자리하고 있었던바,<sup>14)</sup> 조선 문단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위의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밖에 다음의 宣祖實錄 기사에서도 杜詩가 지니고 있는 ‘憂國愛民’

億、然累年所撰，一朝停罷，事竟不成，誠爲不可，至如杜詩修撰等事，可罷也。(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오래 가물어 비가 오지 아니하는 것은 병진년과 다름이 없다. 천재가 이에 이르렀으니 어찌한단 말이나. 곡식 저축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 이제 《치평요람》을 편찬하는 문신의 공역을 정지하자고 청한다. 그러나 여러 해를 두고 편찬하던 것을 하루아침에 그만두어 일이 끝내 성취되지 못하는 것은 진실로 옳지 아니하다. 두시를 수찬하는 등의 일은 과할 수 있는 것이다.)

- 13) “完陽府院君李忠元, ... (中略)... 臣竊惟, 杜甫吟詩曰, 一飯不忘君. 臣以爲東方之人, 一息不忘皇恩, 可也.”

杜甫의 시 가운데에는 “一飯不忘君”라는 구절이 없다는 사실에 기대어 본다면, 해당 문장을 “杜甫吟詩, 曰一飯不忘君.”로 보아 ‘曰’의 주체를 杜甫가 아닌 다른 이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충원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杜甫가 “一飯不忘君”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했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는바, 일단 본고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시한 번역을 따르되 또 다른 번역의 가능성도 존재함을 밝혀두고자 한다.

- 14) 〈王定國詩集序〉: “古今詩人衆矣, 而杜子美爲首, 豈非以其流落飢寒, 終身不用, 而一飯未嘗忘君也歟.(고금의 시인들은 많은데, 두자미가 으뜸이다. 이는 어찌 떠돌아다니며 배고프고 추위에 시달렸으며 평생 등용되지 않았음에도 한 끼 식사에서조차 일찍이 임금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華文軒 編, 《古典文學研究資料彙編·杜甫卷》, 中華書局, 2001, 99쪽.

의 가치에 집중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선조수정실록 20권, 선조 19년 10월 1일 임술] : “두보가 시사를 걱정하여 방관을 구제하였는데, 비록 옛날 현인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오직 낭패하여 서울을 떠날 뿐입니다. 그러니 어찌 마음속에 품은 포부를 펴는 것이 이 때이겠습니까.<sup>15)</sup>

위의 기사는 주학 제독관으로 제수된 趙憲이 봉당의 시비와 학정의 폐단을 논하며 올린 상소문의 일부분으로, 杜甫는 時事를 걱정한 나머지 房琯을 구제하기 위해서 글을 올렸지만, 지금의 조정은 두보와 같은 옛날의 현인들도 제대로 그 뜻을 펼치지 못하는 지경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두보는 선조 재위 기간 동안 경험한 사회적 동란들 속에서 ‘憂國愛民’의 상징으로 소환되고 있었고, 이는 특히 선조실록에서 杜詩가 자주 소환되었던 이유였던 셈이다.

《朝鮮王朝實錄》에 기재된 杜詩 관련 기사들 가운데에는 杜詩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아래의 인용문은 肅宗 24년 端宗의 능 근처에 여섯 신하들의 祠宇 존치 여부에 대한 기사이다.

[숙종실록 32권, 숙종 24년 11월 29일 경자 임금이 말하기를 “두보의 시에 이르기를, ‘한몸 같은 군신 사이라 제사도 함께 하도다’라 하였으니, 무후의 묘가 소열제의 묘 근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미루어보건대, 육신의 사우를 그대로 두는 것이 또한 무슨 방해가 되겠는가?”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두보 시에 이르기를, ‘봉한 해에도 영안궁에 있었도다’라 하였으니, 영안궁은 아마도 무후의 사당 근처에 있는 듯하다.” 하였다.<sup>16)</sup>

15) “杜甫憂時，救房琯斯已，雖以古賢處之，惟狼狽出關而已，展布心腸，此其時乎?”

16) 上曰，杜甫詩云，一體君臣祭祀同。以武侯廟在於昭烈墓近處故也。以此推之，六臣祠宇之仍存，亦何妨耶。…(中略)… 上曰，杜甫詩云，崩年亦在永安宮。永安宮似在武侯廟近處也。

위의 기사에서 肅宗은 杜甫의 〈詠懷古跡五首〉 가운데 第四首의 “一體君臣祭祀同”과 “崩年亦在永安宮” 구를 들어 莊陵 곁에 여섯 신하의 祠宇를 존치해도 무방함을 주장하고 있다. 〈詠懷古跡五首〉는 杜甫가 夔州에 머물던 당시 다섯 인물과 관련한 고적을 소재로 하여 읊은 작품으로, 肅宗이 인용한 시구는 先主 劉備의 사당을 읊은 것이다. 위의 기사에서 인용된 “一體君臣祭祀同”에 대해 일찍이 朱翰은 諸葛亮의 사당이 본래 沔陽에 있었는데 白帝城 劉備의 사당에 다시 세워짐은 군신이 일체가 된 까닭이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sup>17)</sup>, 이 시구로부터 말미암아 肅宗은 端宗을 위해 목숨을 바친 六臣의 사당을 근처에 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sup>18)</sup>

뿐만 아니라 正祖實錄의 다음 기사에서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정당화를 위해 두보 시가 인용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정조실록, 정조 즉위년 4월 24일 을축] 유학 홍이유 등이 상소하기를, ...〔중략〕... 옛적에 파촉 사람들은 한나라 소열제의 사묘에 제사하였는데, 두보의 시에 이른바 ‘세시 복랍에 마을 늙은이들이 달려간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초나라 백성들은 소왕의 사묘에 제사하였는데, 한유의 시에 이른

17) “朱翰曰, 先主崩於白帝城, 其立廟宜也, 武侯祠自在沔陽, 而此處亦爲立祠, 實以君臣一體之故, 陪享正合典禮.(주한은 “선주는 백제성에서 죽었으니, 그 곳에 사당을 세움이 마땅하다. 무후사는 본래 면양에 있었는데, 이곳에 또한 그를 위해 사당을 세운 것은 진실로 임금과 신하가 한 몸이었기 때문이니, 배향함은 바로 전례에 합치한다.”라고 하였다.)” 仇兆鰲 注, 《杜詩詳註》, 中華書局, 1999, 1505쪽.

18) 숙종의 이러한 의지는 아래의 기록에 의거하건대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조실록, 정조 15년 2월 21일 병인] : 전교하기를 ...〔중략〕... 지난 숙종 무인년에 장릉을 복위했을 때 조정의 신하가 육신의 사당이 정자각과 너무 가깝다는 말을 하자, 숙종께서 ‘무후의 사당이 길이 이웃에 가깝다’는 두보의 시구를 인용하면서 ‘헐어버리지 말라고 명하셨으나, 의론이 서로 엇갈려 끝내는 옮겨 세우는 일을 면하지 못했으니, 이것이 어찌 잘못된 일이 아니겠는가.(往在肅廟戊寅追復莊陵也, 廷臣以六臣祠, 太近於丁字閣爲言, 引杜甫詩武侯祠屋長隣近之句, 命勿毀, 因岐貳之議, 竟未免移構, 是豈非欠事也闕典乎.)

바 ‘한 칸 띠 집에서 소왕에게 제사 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sup>19)</sup>

위의 기사는 홍이유의 상소문으로, 明 황제의 묘당에서 제사 지내던 것을 반대한 이명휘를 주벌할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당시 조선에서는 임진왜란 때 군사를 내어준 명나라 황제 毅宗과 神宗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萬東廟를 세워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바,<sup>20)</sup> 홍이유는 杜甫의 〈詠懷古跡五首〉 중 其四의 “歲時伏臘走村翁” 구를 인용함으로써<sup>21)</sup> 만동묘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처럼 《朝鮮王朝實錄》에서 杜詩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그 권위를 공고하게 해 주는 일종의 설득을 위한 방법적 수단으로 인용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기사들을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기사출처	기사내용	인용작품
1	세조 13년, 7월 2일 을축, 5번째 기사	전 서학교수 박윤검이 상서하기를, “신이 일찍이 두시를 읽었는데, 그 시에, ‘ <b>한여름 때와 송골매가 공격하고, 때가 위태로워 비범한 이가 이르렀네. 뛰어난 아우가 풀무지 가운데에서 와서 황급히 시국 논하기를 청하도다. 조서를 받고 궁궐에 불러 들어가, 혀를</b> ’	〈送從弟亞赴河西判官〉

19) “幼學洪履獻等上疏曰, …(中略)… 昔巴人祀昭烈之廟, 則杜甫詩所謂, 歲時伏臘走村翁, 是也, 楚民祭昭王之廟, 則韓愈詩所謂, 一間茅屋祭昭王, 是也.”

20) [경종 1년 9월 2일 경인] : 始, 時烈嘗欲依張弮虞帝祠之義, 立大明神宗祠, 未及就, 尚夏始建於清州之華陽洞, 名之曰萬東廟, 以四壘四豆, 祀神宗毅宗二皇帝. (처음에 송시열이 일찍이 장식의 우제사의 의리에 따라 명나라 신종의 사당을 세우려고 하였으나, 미처 이루지 못하였는데, 권상하가 비로소 청주의 화양동에 건립하고, ‘만동묘’라 이름하여, 사변·사두로 신종과 의종 두 황제를 제사하였다.)

21) 해당 구절에 대해 《杜臆》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한 바 있다.  
“廟貌存而歲祀虔, 見人心思慕, 至今不忘.(사당의 모습은 그대로이고 해마다 제사도 정성을 다하여,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리워하니, 지금에 이르도록 잊지 않음을 알 수 있다.)” 王嗣奭 撰, 《杜臆》, 上海古籍出版社, 1983, 280쪽.

	기사출처	기사내용	인용작품
1	세조 13년, 7월 2일 을축, 5번째 기사	<p>놀려서 황제의 뜻을 움직였네. 병법 오십 가의 뜻 그대의 배에서 정리되었네. 응대하기를 구슬 굴리듯이 하고, 시원스레 통하여 문자를 간략하게 하니, 정륜하는 말은 모두 새로워, 신기를 바로잡기에 넉넉하네.’라고 하였습니다. 일찍이 그 기운을 장하게 여기고, 그 뜻을 가상하게 여겨 마음으로 그윽이 스스로 허락하지 아니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듣건대, 적신 이시애가 멀리 고조와 증조 때부터 말갈 땅에서 나서 국가의 은혜를 특별히 입었는데도, 오히려 반역하려는 마음을 길러서 관새에 침범하여서, 수영을 마음대로 죽이고 우리 왕인을 죽이고 조정을 능멸하였으니, 이것은 신인이 함께 분하게 여기는 바이며, 천지에서 용납하지 못할 바입니다.”<sup>22)</sup></p>	〈送從弟亞赴河西判官〉
2	성종 9년, 4월 29일 경신, 1번째 기사 (1478)	<p>심원이 말하기를, “신이 비록 소원하고 미천하나 마음은 항상 사직에 있습니다. 두보의 시에 이르기를, ‘해바라기 해를 따라 기울어지니, 만물의 성품은 빼앗을 수 없구나’ 라고 하였으니, 신이 진실로 이와 같습니다. 만약 국가가 위태로우면 신이 먼저 사직을 위해 죽어야 하기 때문에 감히 이처럼 주륙 당함을 무릅쓴 것입니다.”<sup>23)</sup></p>	〈自京赴奉先縣詠懷五百字〉

22) 前西學教授朴允儉上書曰, 臣嘗讀杜詩, 盛夏鷹隼擊, 時危異人至, 令弟草中來, 蒼然請論事. 詔書引上殿, 奮舌動天意. 兵法五十家, 爾腹爲篋笥. 應對如轉丸, 疏通略文字. 經綸皆新語, 足以正神器. 未嘗不壯其氣, 嘉其志, 心竊自許. 今聞賊臣李施愛, 遠自高僧, 生從鞬鞞, 特被國恩, 尚畜反心, 侵軼關塞, 擅殺守宰, 殺我王人, 陵蔑朝廷, 此神人之所共憤, 天地之所不容.

위의 기사는 杜甫의 從弟인 杜亞가 뛰어난 재주로 공을 세우고 돌아올 것을 바라며 전송하는 〈送從弟亞赴河西判官〉을 통해 이시에 역시 재주를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하였으나, 지금은 반역과 수탈을 일삼는 용납할 수 없는 인물임을 표현한 것이다.

23) 深源曰, 臣雖疎微, 心則常在社稷. 杜甫詩曰, 葵藿傾大謀, 物性固莫奪, 臣實如是. 若國家殆, 則臣先死社稷, 故乃敢如是不避誅戮.

	기사출처	기사내용	인용작품
3	연산 1년, 2월 28일 임오, 2번째 기사 (1495)	제천현감 권경유가 상소하기를, “신이 변변하지 못한 자격으로 선릉에게 지우를 얻어 오랫동안 경연에서 모시게 되어, 외람되이 난육의 은혜를 입었는데, <b>가는 물줄기와 먼지의 보답도 바치지 못하였으니</b> , 거의 심력을 다하여 견마의 천치를 마쳐야 할 처지인데, 하늘이 무너지는 화가 갑자기 이때에 미칠 줄을 어찌 알았으리까.” <sup>24)</sup>	〈野望〉
4	연산 6년, 2월 9일 임진, 1번째 기사 (1500)	전교하기를, “고형산이 사복사의 말에 대해 아뢴 것은 좃을 수 없다. 예전 말에 <b>‘범이 쇠털 같다’</b> 고 하였는데, 어찌 가볍게 옛 법을 고칠 것이겠는가.” 하였다. <sup>25)</sup>	〈述古三首〉 其二
5	선조 32년, 윤4월 29일 정미, 2번째 기사 (1599)	판돈녕부사 송찬이 차자를 올렸다. …(중략)… 신이 삼가 생각건대 당나라 신하 두보는 평생 뜻을 말함에 나라를 걱정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시에, <b>“안위는 대신에게 달려 있는데, 내 어찌 눈물만 길이 흘리리.”</b> 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성상께서는 더욱 더 인재 양성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효와 덕이 있는 장상에게 관심을 기울이소서. 그리하여 그들을 이끌고 도와주어 사방의 기강이 되게 함으로써 큰 복을 맞으소서. <sup>26)</sup>	〈去蜀〉
6	선조 32년, 11월 17일 임술, 4번째 기사 (1599)	내가 진후하여 누누이 말하는 것은 국가를 위하고 종묘사직을 위해서이다. 《서경》에는 대신을 고퍽과 주슴이라 하였고, 《사기》에는 주석과 교악으로 비유하였다. 이극은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어진 정승을 생각한다.’ 하였고, 두보는 <b>‘안위는 대신에게 달려 있다.’</b> 하였다. 경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척 크다. 하였다. <sup>27)</sup>	〈去蜀〉

24) 堤川縣監權景裕上疏曰, 臣以不佞, 遭遇宣陵, 久侍經幄, 猥蒙卵育之恩, 未效涓埃之報, 庶竭心力, 以盡犬馬之齒, 何知天崩之禍, 遽及於此時乎.

25) 傳曰, 高荊山所啓司僕馬事, 不可從也. 古云, 法如牛毛. 豈可輕改舊法乎.

	기사출처	기사내용	인용작품
7	효종 9년, 12월 27일 기축, 2번째 기사 (1658)	(송시열이) 또한 아뢰기를, …(중략)… 이 장에서 말한 ‘잡아서 보존한다’고 한 두 글자야말로 지극히 중요한데, 학문 공부에 있어 오직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만약 제대로 잡아서 보존하지 못하면 마음 씀씀이에 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물을 응접할 때에도 적당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두보의 시 가운데 ‘머리 들어 정신없이 새를 보다가 머리 돌려 엉뚱하게 대답하였네.’라는 시구는 이를 잘 비유한 것입니다. 주자가 동안에 있을 때 종소리를 들으면서 그 마음의 존부를 징험해보았더니 하나의 종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마음이 달아나버렸다고 하였습니다. 대현도 이와 같은데, 더구나 학자이겠습니까. <sup>26)</sup>	〈漫成二首〉 중 其二
8	현종 즉위년, 9월 5일 계해, 3번째 기사 (1659)	송시열이 일어나 대답하기를 …(중략)… 신의 벗 이유태가 일찍이 말하기를 ‘정상께서 과연 큰 뜻을 갖고 계시다면 비록 재주가 없는 자라 하더라도 펼쳐 일어나 석호촌의 부인처럼 군사들의 새벽밥을 짓는 일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신이 비록 매우 용렬하지만 감히 소명에 응해 왔던 것입니다. 진하게서 이미 큰 뜻이 계시고 또 신을 버리고자 하지 않으시니, 신이 어찌 감히 물러나 떠날 마음을 갖겠습니까. 마땅히 목숨을 걸고 약속하겠습니다. <sup>27)</sup>	〈石壕吏〉 중 “急應河陽役，猶得備晨炊”

26) 判敦寧府事宋贊劄子, …(中略)… 臣竊思之, 唐臣杜甫, 一生言志, 無非憂國也, 而其詩曰, 安危大臣在, 何必淚長流. 伏願聖上, 更加審察, 儲養人才, 注意將相, 有孝有德, 以引以翼, 四方爲綱, 以迓鴻休.

27) 子之前後縷縷者, 爲國家也, 爲宗社也. 書稱股肱舟楫, 史比柱石喬嶽. 李克曰, 國亂思良相. 杜甫曰, 安危在大臣, 甚有望於卿等焉.

위의 “安危在大臣”는 杜甫의 〈去蜀〉의 구절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安危大臣在”의 오류인 듯하다.

28) 又曰, …(中略)… 此章所言操存二字, 極切要處, 學問工夫, 唯此最難. 若不能操存, 則不但於心術有害, 於應事接物, 不得其當矣. 杜詩, 仰面眺看鳥, 回頭錯應人之句, 此善喻也. 朱子在同安時, 聞鍾聲, 而驗其心之存否, 則一聲未了, 而心

일찍이 孟槩에 의해 부여된 ‘詩史’로서의 가치는 杜甫의 시가 역사에 비견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과 다름 아니라고 할 것이다.<sup>30)</sup> 결국 《朝鮮王朝實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일련의 예들은 결국 杜詩에게 부여된 ‘詩史’로서의 가치와 무관치 않을 텐데, 위의 예들은 곧 조선 사회에서 杜詩는 시라는 글쓰기의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규범으로 인지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물론 이 밖에도 《朝鮮王朝實錄》에는 杜詩가 문신들에게 필독 학습서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들도 남아 있다. 아래의 기사가 그 중 하나이다.

[세조실록 42권, 세조 13년 6월 22일 을묘] 예조에 전교하기를 “이제 간택한 문신 1백 7인에게 《周易》·《易學啓蒙》·《禮記》·《周禮》·《左傳》·《綱目》·《宋元節要》·《杜詩》·《李白》·《東坡》·《莊子》·《老子》·《列子》를 나누어 주고, 기한을 세워 다 읽도록 하라.” 하였다.<sup>31)</sup>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문신들은 《周易》과 《禮記》 그리고 《左

已走作矣。大賢如此，況學者乎。

위의 기사는 효종이 《心經》을 강함에 송시열이 ‘操存’의 어려움과 중요함을 강조하며 설명한 것이다.

29) 時烈起而對曰，…(中略)… 臣友李惟泰嘗言，聖上果有大志，則雖無才智者，亦且奮起，以備石壕婦晨炊之役，可也，云云，故臣雖甚庸下，敢膺召旨而來爾。殿下既有大志，又不欲捨臣，臣何敢有退去之心乎。只當以死爲期矣。

30) “杜逢祿山之難，流離隴蜀，畢陳於詩，推見至隱，殆無遺事，故當時號爲詩史。(두보는 안록산의 난을 만나, 농 땅과 축 땅을 떠돌아다니며 시에 모두 펼쳐내었는데, 추론하여 드러낸 것이 드러나지 않는 일 때까지 이르고, 거의 빠뜨린 일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당시 시사라고 불렀다.)” 華文軒 編, 《古典文學研究資料彙編·杜甫卷》, 中華書局, 2001, 38쪽.

고진아에 의하면 ‘詩史’설은 孟槩에 의해 처음 제기된 이래로 두시를 평가하는 공통된 인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특히 송대 이후 ‘시사’의 함의는 다양한 의미의 확대와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고진아, 《두보와 두시에 대한 사랑의 역사》, 양지, 2003, 59-63쪽.

31) 傳于禮曹曰，今所揀文臣百七人，分授易，易學啓蒙，禮記，周禮，左傳，綱目，宋元節要，杜詩，李白，東坡，莊子，老子，列子，立期畢讀。

傳》, 《資治通鑑綱目》과 함께 杜甫의 시를 학습해야 했으며, 심지어 世宗實錄에는 杜甫의 시를 비롯하여 李白, 韓愈, 柳宗元의 시를 학습하고 매일 학습 분량을 점검토록 명한 사실도 존재한다.<sup>32)</sup> 이렇듯 杜詩가 조선 시대 필수 학습서로 지목된 것은 杜甫의 시가 비단 시학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문인들의 학문적 소양을 제고하는 데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셈이다.

### Ⅲ. 杜詩를 바라보는 조선의 두 가지 인식의 축

일찍이 正祖는 《杜陸千選》을 완성하고 신하들에게 頒賜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정조실록 49권, 정조22년 7월 22일 갑신] 상이 일찍이 생각하기를 ‘시교가 느슨해진 뒤로 시 삼백편이 남긴 뜻을 잃지 않은 것을 찾아보면 오직 두보가 거기에 가까운데 율은 특히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리고 송나라의 육유 역시 그 체가 순수하고 음이 우아하여 낮게 깔리며 애조를 띠는 것과는 같지 않다.’고 하여 특별히 드러내어 밝혔었다.<sup>33)</sup>

[정조실록 1권 정조대왕 행장] 근세에 와서 시율이 점점 음절이 촉박해지고 의미도 건조하다 하여 두보, 육유의 시 전편을 운에 따라 분류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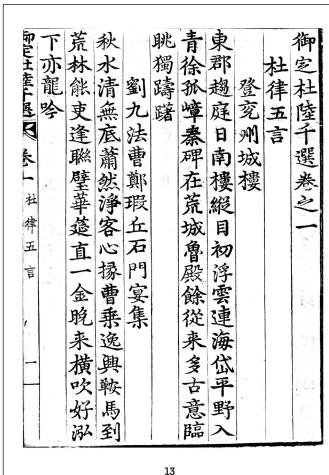
32) 아래의 기사는 집현전 대제학 이맹균이 시학을 진흥시키기 위한 방법을 상소한 것 중 일부이다.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26일 병인] : 臣等謹參酌元典詩學興行條件, 開具於後. …(中略)… 一, 春秋等文臣中直以下應賦詩者, 亦令兼習李、杜、韓、柳等詩, 令藝文館考其所讀卷數, 賦詩科次時, 并錄啓聞.(신 등이 삼가 《원전》을 참작하여 시학을 진흥시킬 조건을 아래에 전개하여 갖추나이다. …(중략)… 《춘추》 등으로 문신의 중직 이하가 시를 짓는 데에 응하는 자도 역시 겸하여 이백·두보·한유·유종원 등의 시를 익히게 하고, 예문관으로 하여금 그들이 읽은 권수를 조사해서, 시를 지어 차서를 정할 때에 아울러 기록하여 아뢰게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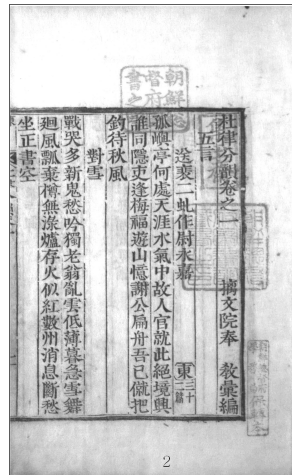
33) 上, 嘗以詩教既弛之後, 求不失三百篇遺意者, 惟杜甫近之, 而律尤其聖也. 宋之陸游, 亦體醇音雅, 不類噍殺之調, 特加表章.

인쇄 반포하였는데 그 모두가 백성을 계도하고 풍속을 순화시키기 위한 깊은 뜻에서 나온 것이다.<sup>34)</sup>

위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正祖가 杜甫와 陸游의 律詩를 선한 이유는 백성을 계도하고 풍속을 순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成宗 15년 11월 기사에 의하면 “옛 신하는 비록 폐해 버림을 당하였을지라도 차마 임금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굴원은 궁궐을 슬프게 바라보았고 杜甫는 중남산을 오히려 그리워하였다”<sup>35)</sup>라고 하였으니, 우국과 충직으로 규정되었던 杜甫의 시는 詩教를 바로 세우는 최적의 텍스트였음은 쉬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杜陸千選<sup>36)</sup>



〈그림 3〉 杜律分韻<sup>37)</sup>

34) 又以近世詩律之漸就嚆殺，取杜甫、陸游全律，分韻印頒，皆導民化俗之至意也。

35) 아래의 기사는 及第 蔡壽가 상서한 것으로, 임금에 대한 충정이 여전한함을 굴원과 杜甫를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성종실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21일 갑진] : 古之人臣，雖遭廢棄，不忍忘君，故屈原悵望修門，杜甫尚戀終南，

36) 正祖 23年，金屬活字本(丁酉字)，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위의 두 그림은 正祖가 편한 《杜陸千選》과 《杜律分韻》의 일부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杜律分韻》은 앞서 인용한 正祖 행장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杜甫의 律詩를 운별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시의 운에 익숙하지 않던 문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와 관련하여 임도현의 논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조선에서 간행된 문헌들은 대부분 편년이 아닌 분류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바, 이는 곧 杜詩를 학습의 대상으로 인지했던 조선 문인들의 인식이 반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sup>38)</sup> 결국 《杜律分韻》에서 보이는 운목별 작품의 배치는 ‘知人論世’에 입각한 체계적 杜詩 이해보다는 杜詩를 모범으로 삼아 학습하고 실제 창작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적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sup>39)</sup>

이와 관련하여 《朝鮮王朝實錄》에서 學杜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다음의 기사들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조실록 187권, 선조 38년 5월 27일 경자] 문은 하잘것없는 지푸라기

37) 行地未詳; 刊行年未詳, 木活字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38) 임도현, 〈조선의 두보 시 학습서의 특징〉, 《한국문화》 72집, 2015, 207쪽.  
임도현은 위의 논문에서 중국과 조선의 杜甫 시 간행물의 형식적 차이에 따른 분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임도현은 해당 논문의 〈표 1〉을 통해 중국에서 간행된 분류본을 총 2종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송대에 이미 5종의 분류본이 간행되었고 명대에는 6종이 간행된 바 있다.

39) 이와 관련하여 최석원은 〈門類本 杜甫詩集을 통해 본 知的 전통의 균열〉(《중국어문학》 제79집, 2018, 156-157쪽)에서 門類本의 출현은 杜甫의 시를 어떻게 활용한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김보경은 〈朝鮮時代 蘇軾詩 選集에 대한 일고찰〉(《인문과학연구논총》 제37권 2호, 2016, 112쪽)에서 조선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蘇軾詩 選集의 底本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편년주본의 영향이 미미하고 분류주본의 영향력이 훨씬 컸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는 물론 중국에서의 소식시 주석본의 편찬 경향이나 기존 조선간본의 영향 등이 주된 원인이겠지만, 두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식시를 시 창작 학습의 대상으로 인지했던 당시의 인식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같은 것이고, 시는 더욱 하잘 것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로서는 중국을 섬겨야 하고 중국 사신을 접대해야 하니, 문을 하찮게 여길 수 없고 시도 외면할 수 없다. 나는 또 이한림과 두공부의 시를 정하게 가려서 그 아래에 편입했으면 한다.<sup>40)</sup>

[광해군일기 91권, 광해 7년 6월 18일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우리 나라에서 중국 사신을 접대할 즈음에 오로지 시율로 화답하는데, 나라를 빛내는 데 있어서 어찌 도움이 적다고 하겠습니까. 전날 이이첨이 올린 기사 가운데서 이백과 두보, 문선으로 감시에서 윤강하자고 한 것은 바로 이를 위해서 한 말입니다.”<sup>41)</sup>

위의 기사 외에도 成宗實錄에는 侍讀官 이창신의 “사장이 비록 치국에 관계되지 않으나, 중국의 사신으로 장영과 기순 같은 무리가 나온다면 반드시 더불어 창화해야 하니, 사장을 여사로 보아서 익히지 않음은 옳지 않습니다.”<sup>42)</sup>라고 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다. 일찍이 신상필은 조선초기 문학의 경향성을 설명하면서 한편으로는 “인재의 양성과 문풍 진작을 통해 유가적 의례에 기반한 국가 제도의 확충”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명과의 사대관계”에서 취해야 할 문제들과 관련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sup>43)</sup> 결국 위의 기사들은 杜詩의 학습이 명과의 사대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적 선택이었음을 보여주는바, 조선 왕실에서 杜甫를 필수 학습 교재로 채택하고, 杜詩를 통해 詩作을 연마했던 데에는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 유지를 위한 실용적 목적 역시 작동한 결과임을 위의 기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40) 文猶土苴, 詩尤不足貴. 雖然, 我國事天朝, 接華使, 文不可少之, 而詩不可眇視也. 予又欲將李翰林, 杜工部之詩, 抄擇精選, 編入其下.

41) 禮曹啓曰, 我國接待華使之際, 專以詩律唱酬, 至於華國, 豈曰小補. 前日臣爾瞻啓辭中, 請以李, 杜, 文選爲監試輪講者, 正爲此而發也.

42) [성종실록 122권, 성종 11년 10월 26일 임심] 詞章, 雖若不關於治國, 中朝使臣, 如張寧, 祈順輩出來, 則必與唱和, 詞章不可視爲餘事, 而不習之也.

43) 신상필, <조선 전기 杜詩의 諺解에 담긴 문예의식의 충돌과 변주>, 《동양한문학연구》 제54집, 2019, 109쪽.

이처럼 杜甫 시를 향한 조선 사회의 시선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효용론적 가치에 대한 긍정은 물론이거니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사신과의 창화에 응수하기 위한 수단 혹은 학습의 수단과 같은 실용적 목적이라는 두 가지 인식의 축이 지탱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 IV. 나가며-연구의 완정성을 위하여

成宗實錄에 따르면, 경희루를 지나던 밤 물에 비친 달을 보며 杜甫의 시구를 떠올린 성종은 신하들에게 杜詩를 습용해 시를 짓도록 하였다고 한다.<sup>44)</sup> 燕山君 역시 大紅紗帖裏를 내린 강혼에게 杜甫의 〈端午日賜衣〉에 맞는 시를 짓게 한 바 있으니,<sup>45)</sup> 당시 杜詩는 비단 문인들뿐만 아니라 왕실에서도 여전히 애호와 존경의 대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조선의 杜詩 수용과 영향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杜詩에 탑재되어있는 사상적 경향 혹은 杜詩가 지니고 있는 예술적 성과에 대한 조선 문인들의 인식과 활용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본고는 《朝鮮王朝實錄》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문학’의 영역으로 국한되어 있는 杜詩 수

44) [성종 24년 1월 25일 신묘] 어서로 ‘사경에 산이 달을 토해 내니 미명에 물이 누각을 환히 비추는구나’라는 시구를 승정원에 내려 이르기를, “이것은 두공부의 시인데, 내가 제사 지낸 후에 경희루를 지나가다 보니 물과 달이 서로 비추고 있어, 이러한 경치로 인하여 홀연히 이 시구가 생각났다. 승지·주서·사관은 이 시의 뜻을 가지고 읊시를 지어서 바치도록 하라.” 하였다.(御書四更山吐月, 殘夜水明樓之句, 下承政院曰, 此杜工部詩也, 予祭後過慶會樓, 水月相映, 因時景, 忽憶此句, 承旨, 注書, 史官, 以此詩意製律詩以進.)

45) [연산군일기 58권, 연산 11년 5월 25일 기유] 승지 강혼이 전에 내린 읊시 제목으로 10수를 지어 바치니, 대홍사첩리 1건을 내리고, 또 어서로 두공부의 ‘단오절에 옷을 하사하다’라는 시 가운데, 뜻대로 장단이 꼭 맞으니 중신토록 임금의 정 잊지 못하리라는 글귀를 강혼에게 내리며 이르기를, “이 뜻으로 사례하는 시를 지어 바치라.” 하였다.(承旨姜渾, 以前下律詩題十首製進, 賜大紅紗帖裏一件, 又下御書杜工部端午日賜衣詩, 意內稱長短, 終身荷聖情之句, 賜姜渾曰, 其以此意, 製謝詩以進.)

용과 영향의 문제를 ‘조선 사회’로 그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한자문화권 내 杜詩 인식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도달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조선이라는 공간 속에서 두시는 여전히 효용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과 동시에 외교, 학습 등 실용적 목적에 대한 강구 역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는 《朝鮮王朝實錄》에 기재되어 있는 관련 기사들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조선의 역사적 흐름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동반될 때 비로소 조선 사회의 杜詩 인식 문제를 정밀하게 고찰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는 추후 연구 과정에서 보태어질 것임을 밝힌다.

### < 참고문헌 >

- 고진아, 《두보와 두시에 대한 사랑의 역사》, 양지, 2003.
- 김보경, 〈朝鮮時代 蘇軾詩 選集에 대한 일고찰〉,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7권 2호, 2016.
- 서경호, 〈한중문학의 사회문화적 특징〉, 《제1회 한·중인문학포럼 발표논문집》, 2015.
- 서수생, 〈杜詩 權域 傳來의 時期와 諺解의 是非點〉, 《어문학》 제12호, 1965.
- 신상필, 〈조선 전기 杜詩의 諺解에 담긴 문예의식의 충돌과 변주〉, 《동양한문학연구》 제54집, 2019.
- 심경호, 《漢文學과 詩經論》, 일지사, 1999.
- 이병주, 《韓國文學上의 杜詩研究》, 이우출판사, 1979
- 이영주, 《韓國詩話에 보이는 杜詩》,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 임도현, 〈조선의 두보 시 학습서의 특징〉, 《한국문화》 72집, 2015.
- 전영란, 《韓國詩話中有關杜甫及其作品之研究》, 文史哲出版社, 1991.

- 정선모, 〈高麗詩壇에 있어서의 杜詩受容 樣相 考察-林椿의 杜詩評價를 중심으로〉, 《漢文學報》 제12집, 2005.
- 최석원, 〈門類本 杜甫詩集을 통해 본 知的 전통의 균열〉, 《중국어문학》 제79집, 2018.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杜詩와 杜詩諺解 연구》, 태학사, 1998.
- 華文軒 編, 《古典文學研究資料彙編·杜甫卷》, 中華書局, 2001.
- 仇兆鰲 注, 《杜詩詳註》, 中華書局, 1999.
- 王嗣奭 撰, 《杜臆》, 上海古籍出版社, 1983.
- 左江, 《李植杜詩批解研究》, 中華書局, 2007.
-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데이터베이스 [sillok.history.go.kr](http://sillok.history.go.kr)

### < Abstract >

During the *Joseon* (朝鮮) Dynasty, *Du-fu* (杜甫)'s poems was still loved and respected by not only literati but also the royal family. However, it is true that most of the discussions on the acceptance and influence of *Joseon* (朝鮮) Dynasty have focused on the ideological trends or the perception and utilization of *Joseon* (朝鮮)'s writers on the artistic achievements of *Du-fu* (杜甫)'s poems. It is true that the previous research achievements on the issue of acceptance and influence of *Joseon* (朝鮮) focused on the influence and acceptance of individual literat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rehensively identify the acceptance and influence of the *Joseon* (朝鮮) society on *Du-fu* (杜甫)'s poetry, breaking away from these previous research achievements. Based on the analysis of 64 articles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朝鮮王朝實錄), this study considered the perception and understanding of *Du-fu* (杜

甫)′s poems by the ruling class at that time. Through this research process, we can confirm that *Du-fu*(杜甫)′s poems are still recognized in *Joseon*(朝鮮)′s space as a utilitarian point of view, while also demanding learning for practical purposes such as diplomacy.

Key Words : 朝鮮王朝實錄(*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杜甫(*Du-fu*), 杜詩(*Du-fu* poetry), 朝鮮의 杜詩 인식(*Cognition of Du-fu poetry in Joseon*), 朝鮮의 杜詩 학습(*Du-fu poetry learning in Joseon*)

